

일주문

통도사 장학금 전달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6월 20일 경남체육고 2학년 펜싱 박상영, 경남체육고 3학년 유도 배슬비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범어사 여름불교학교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7월 23~25일 범어사에서 '신나는 범어사 어린이여름 불교 학교'를 개최한다.

수덕사 어린이 캠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7월 28~30일 수덕사 어린이 스스로 캠프를 연다. (041)330-7700

쌍계사 여름한문학당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7월 26~31일 하동 쌍계사 및 인근 문화체험장에서 어린이 여름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자비나눔 기금 전달
서울 노적사 주지 풍후 스님은 초하루 법회에서 모인 자비나눔기금 23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염지관 명상수련회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은 6월 29일~7월 1일 용인 법문사에서 '인경스님과 함께하는 염지관 명상수련회'를 진행한다.

제6회 영어 담마 캠프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은 8월 3~6일 속리산 범주사에서 제6회 자우 스님의 '영어 담마 캠프'를 실시한다. (02)6012-1731

종로노인복지관, 초코파이 전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6월 19일 노인훈련소 호국 연무사를 방문해 한달 동안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초코파이 200박스를 전달했다.

미안마 초등학교 지원
조계종 비구니스님 모임 마하회 회장 일진 스님은 6월 14일 청도 운문사에서 미안마 제야아용 마하 초교 건립 기금 1억 400만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제11회 사회복지봉사 표창
이석진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전화상담원은 6월 21일 제11회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불교 환경문제 관심 가져야”

진월 스님, 세계불교도우의회 부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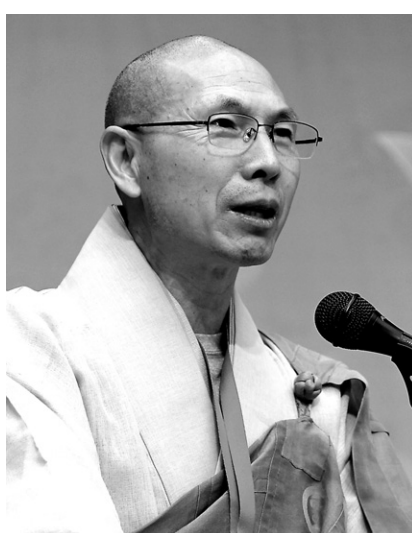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전 세계 불교인들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가 6월 16일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우의회는 여수 엑스포와 더불어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였다.

특히 6월 2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학과 교수 진월 스님(사진)이 세계불교도우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월 스님은 지난 2000년부터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2002년부터 WFB 상임이사, 현 조계종총무원장 국제특보로 활동하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제 업무를 도맡아 왔다.

또 지난달 5월 29~6월2일 태국 방콕에서 85개국 1천6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유엔 배식절(UNDV)에 한국대표로 참석했으며, 동시에 개최된 국제불교대학협회(IABU) 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된 바 있다.

진월 스님은 부회장 선출소감에 대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책임감이 커졌다. 이



번 WFB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국불교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며 “세계평화문제 등에 한국불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WFB 한국대회는 ‘21세기 불교 생태 환경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모여 관련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스님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불교도 이에 뜻을 함께하고 생태관련 문제에 관심을 두고 포교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WFB 환경위원회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WFB는 단순히 불자들만을 위한 친목도모행사가 아니다. 앞으로 불교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종교가 돼야 한다. 이번 부회장 선출로 계기로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불교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진월 스님은 향후 4년 임기 동안 세계불교도들의 우의를 위해 활동한다.

한편 WFB는 1950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세계불교지도자들이 모여 창립한 뒤 현재 전 세계에 걸쳐 150여개 지부가 있는 불교 최대 국제기구다.

현행 불기 및 오색 불교기를 제정, 통일하는 등 불교 세계 일치와 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soej94@hyunbul.com

“불교문화학과, 동명대 대표학과로 육성”

설동근 동명대 신임총장 계획 밝혀

“인재 불사가 가장 큰 불사라고 생각한다. 총장 4년의 임기동안 불교문화학과를 적어도 동명의 자량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설동근(사진) 前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6월 13일 제7대 동명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설 총장은 취임 소감에 대해 불교문화학과 육성을 주저없이 말했다.

“재가불자로서 한국불교 발전에 큰 디딤돌을 놓으신 강석진 초대 이사장님의 뒤를 잇고자 마음을 내었습니다.”

설 총장은 “1970년대 한국 산업의 근대화와 수출산업을 주도했던 강석진 회장의 근면성과 창의성, 봉사정신을 이어 받아 창의적인 인재, 산업 실용 인재 양성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설 총장은 “3년 전 불교문화학과가 생기는 걸 보면서, 그분의 유지가 열매를 맺는구나 했다. 하지만 불교문화학과가 학교 평가에 걸림돌이 되고 이어 학교 존재의 의미가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 총장은 “교육감과 교과부 차관의



경험을 살려 학과가 지속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 동명대의 자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 총장은 이날 불교문화학과 육성을 과제로 꼽았으며 그 시작으로 학비지원을 제시했다. 학과 신설 당시 학교 측에서 계획한 ‘장학금제도’가 미비해진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연합신도회와 협약을 맺고 장학금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총장은 이어 불교문화학과 설립 향상을 언급했다. 학생들의 강연을 비롯하여 불교교과목과 맞는 범위 내에서 다른 대학교

교수진들의 겸임도 재고하고 있다. 이어 동국대와 동일한 군법사의 특전해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재직 중에 석·박사 학위를 딸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설 총장은 “부처님은 사람으로서 가치를 열어보이신 분”이라며 “학생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총장은 “모든 대학의 공통 문제가 학생 수와 취업문제”라며 “남과 같이 헤쳐사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자 설 총장은 매일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며 주말마다 해운정사와 육연선원을 비롯한 근처 사찰을 찾아 108배를 하며 수행 활동을 하고 있다.

동명대는 1970년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했던 동명목재를 모기업으로 하는 대학으로, IT특성화와 산학협력의 결과로 10년간 ‘1·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출처: 교과부)에 추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사)대한불교 종단총연합회 임원개편 제8차 대표자 대회 및 제7대 임원개편대회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총재 의륜, 회장 청운)는 6월 15일 평창동 키스호텔에서 ‘제8차 대표자 대회 및 제7대 임원 개편대회’를 개최했다.

100여 종단대표가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회장 청운 스님(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여러 고문님들을 받들고 의륜 총재님과 부총재님 및 부회장 여러분들과 합심해서 본회를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재 겸 이사장인 의륜 스님은 “한국불교 연합회 단인 종단총연합회는 23년 전 창회해 금년 2월에 정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 현재 130여 종단이 가입돼 있다”며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연합회단으로서 합심 단결해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 불교발전에 힘쓰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원진 소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향후 연합회의 과제, 9월 연합법회 등이 논의됐다. 노덕현 기자



종정협의회 대전 지역 성금 기탁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석월인, 이사장 석지산)는 6월 14일 대전시시장실에서 염홍철 시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금했다. 전달식에는 종정협의회 월인 회장과 지산 이사장, 석대웅 상임이사, 석해우 종정, 석진공 종정, 서병열 사무총장과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 시청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종정협의회는 매년 모금한 일정 금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정기적으로 기부해 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이익선 씨,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불교TV ‘열린마당’ 진행을 맡고 있는 이익선 아나운서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홍보대사로 나선다. 이익선 아나운서는 6월 15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이 씨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홍보대사까지 하게 되어 더 뿌듯하다”며 “앞으로 주변 사람들은 물론 TV와 라디오를 통해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을 올바르게 알려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World Buddhist Law King Ilbong Jonsa 98th Anniversary and 16th Anniversary Memorial Law Conference. Includes details about the event, location, and organizers.